



정교회주보

제2420호

2023.5.14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성 안드레아 대성당(사진)은 그리스 파트라의 도심 서쪽에 있으며, 1908년 건축이 시작되어 66년 후인 1974년 완공되었다. 길이 60m, 너비 52m이며 7,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그리스에서 가장 큰 비잔틴 양식의 성당이다. 중앙 돔에는 5m 길이의 금 십자가가, 다른 돔에는 12개의 작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예수님과 열두 사도를 의미한다. 성 안드레아 사도의 성해 일부가 모셔져 있다.

부활 후 제5주일 (사마리아 여인 주일)

성 이시도로스 순교자
성 테라폰 주교순교자
(제4조 • 조과 복음 7)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 1, 2, 3 응송 사도경 21~23
- 부활 찬양송 부활절 의식서 16
- 부활 입당송 " " 38
- 제4조 부활 찬양송 82
- 성당 찬양송
- 부활 시기송 부활절 의식서 39
- 사도경 : 사도행전 11,19~30 ..254
- 복음경 : 요한 4,5~42 100
- 성모송 부활절 의식서 26
- 영성체성혈송 " " 42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와서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성부의 영원성을 공유하시는 성자, 하느님의 말씀, 치유의 샘이신 분께서 샘에 가셨도다. 그때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물을 길으러 다가왔도다.

구세주께서 그녀를 보고 말하였도다. “내게 마실 물을 주어라. 그리고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너라.” 하지만 그녀는 이를 숨기려고만 하였도다.

하느님이 아니라 한 남자에게 말하듯 그녀는 말하였도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도다. “나는 남편이 없다’고 네가 잘 말하였도다. 너는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너와 함께하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로다.”

이 말에 여인은 두려워하며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말하였도다. “와서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세상에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순절 전례서'에서

정교인의 영적 양식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우리 정교인들은 주님의 거룩한 성체와 성혈을 모시기 위해서, 먼저 영혼을 깨끗이 하여 몸을 합당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 사도 바울로께서는,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고린토 전 6,1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친교인 이러한 교제와 결합은 먼저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주로 영혼 속에 있으며, 그곳에 자신의 덕과 행위로부터 나오는 거룩함을 저장합니다. 그곳은 또한 죄의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몸이 우리 마음의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것처럼, 몸에 관련된 모든 것은 영혼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이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살기 위해서 물질적인 양식을 필요로 하지만, 사람은 물질적 양식보다는 영적인 양식을 더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한시적이지만,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경에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요한 4,14)라는 말씀은 곧 영적인 양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이며, 우리는 이를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최후의 만찬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이다.”

주님께서서는 몸소 사도들에게 이 예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으며, 정교회는 사도들을 통하여 이

거룩한 성사를 오늘날까지 거행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사도들에게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려고 하지 않으셨다면, 이 명령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와 함께 마지막 최후의 날까지 이 예식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사시며,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요한 14,17)

이분이 바로 사제의 손과 입을 통하여 그 신비를 완전하게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느님께 예배드려야 한다.”(요한 4,23-24)

주님께서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의 영적인 양식을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영적인 친교를 계속해야만 주님과 함께 하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며, 그분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만찬식은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천국의 계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폭풍우 속을 걷는 인생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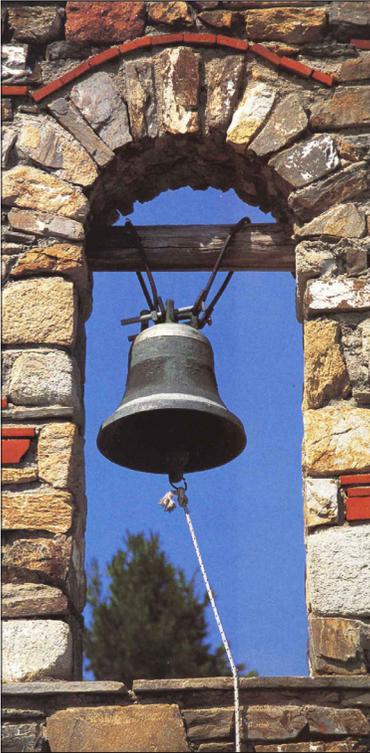
성 이그나티오스 브리안차니노프(1807-1867)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우리 인생의 길은 대양을 가로지르는 항해와 같습니다. 때로는 고요하고 때로는 순풍이 불기도 하지만, 아주 자주 폭풍우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부는 것을 보더라도 당황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파도와 맞바람을 거스르며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배가 파손되거나 심하게는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일 폭풍우 속에서 영혼의 배가 손상을 입었다더라도 비관적으로 생각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을 만한 항구를 찾아 그 안으로 들어가, 배를 고정시키고 부서진 부분을 수리한 뒤, 전능하신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서 항해를 계속하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주님께서서는 당신께 희망을 둔 이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폭풍우 자체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에게 이로움을 가져다줍니다. 그 사람은 폭풍우로 인해 유능하고 경험 많은 선원이 됩니다. 영혼의 배가 수리를 받는 항구는 교회이고, 깊이 뉘우치는 정신으로 드리는 기도이며, 성경과 영적인 책을 읽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다음의 말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유혹을 견디는 사람은 복되다.” 이와는 반대로, 경험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은 서투르고 미숙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맞닥뜨릴 폭풍우가 앞날의 시련을 견뎌내기 위해 시험하고 단련하는 경험이 되고, 여러분을 미리 준비시키는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폭풍우는 틀림없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 식

■ 성화 및 성물 복원 작업

성 니콜라스 대성당과 성 막심 성당에 있는 오래된 성화와 성물 복원 작업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번 작업 과정은 우리 교회 역사에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게 남을 것입니다. 그리스에서 온 전문가 세 분(Ilias Papageorgiou, Konstantinos Tsourmas, Panagiota Apostolou)을 비롯하여,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복원된 성모님 성화와 세라핌 성인 성화는 오늘, 축복식 후에 대성당 원래의 자리에 안치됩니다.

■ 코로나19 종식 기도식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위기 상황 해제 발표에 따라 우리 대교구도 이 방침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모든 성당에서는 성찬예배에 이어서 코로나19 종식을 인도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특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성인의 가르침

절제로 승리하는 삶을 살다

수도 생활을 사랑하는 주교가 있었다. 그는 1년에 한 번 자신의 교구에 속해있는 수도원들과 스키티를 방문했는데 한번은 긴 여정에 지쳐서 어느 은수자의 거처에서 잠시 쉬어가기를 청했다.

은수자는 주교의 발을 씻긴 후 그를 대접하려고 음식을 준비했지만, 주교에게 내줄 것은 그가 주로 먹는 빵과 소금밖에 없었다. 그는 소박한 식탁에 대해 미안해하며 말했다.

“주교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주교님께 드릴 음식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수도자들의 놀라운 절제를 높이 사는 주교는 은수자에게 말했다.

“내년에 내가 다시 여기를 방문할 때는 소금도 볼 수 없게 되었으면 좋겠소.”

